

국보급 '수월관음도' 美서 발견

총 3점, 결가부좌 형태 희귀 불화도 포함



美 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 미술관이 소장한 '결가부좌 수월관음도' (사진 왼쪽)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소장한 수월관음도, 보스턴미술관이 소장한 지장보살도(사진 오른쪽)



사진제공=정우택 동국대 교수

전세계 160여 점 밖에 알려지지 않은 고려불화가 미국에서 대거 발견됐다. 특히 그동안 2점만이 있었던 '결가부좌' 한 독특한 양식의 수월관음도라 더욱 눈길을 끈다.

정우택 동국대 교수(동국대 박물관)는 지난 2월 문화재청의 지원으로 미워싱턴 프리어 미술관이 진행하는 '미국 고려불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참여해 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RISD) 미술관에서 '결가부좌 수월관음도'를 확인했다.

미국의 유명 미술대학으로 꼽히는 '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RISD)' 미술관은 일제강점기인 1917년 일본 고미술상을 통해 이 작품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고려불화 중에서도 수월관음도는 약 46점으로 대부분이 반가좌 형태이고, 이번 결가부좌 형태는 매우 희귀하다"

고 말했다. 정 교수는 "결가부좌는 일본 오카야마(岡山) 현의 조라쿠지(長樂寺) 소장품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딱 2점밖에 없다"며 RISD가 소장품은 보존 상태도 좋고 예술성도 탁월"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다른 국보급 고려불화도 2점이 더 발견됐다. 보스턴 미술관이 1911년에 구입한 '지장보살도(地藏菩薩圖)' (14세기 후반)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1929년 구입한 '반가좌 수월관음도' (14세기 중반)이다.

정 교수는 "이번 조사를 통해 미국에서 더 많은 고려불화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고려불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1차 조사가 완료됐다. 문화재청과 프리어미술관은 2015년 말 이번 프로젝트의 성과를 인터넷을 통해 전면 공개할 방침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인도 보드가야서 국제불교 학술대회 예정

40개국 300여 학자 결집해, 인도 불교유적 보존·활용 모색

인도의 불교성지를 보존·활용하기 위한 대규모 국제학술대회가 인도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전세계 300여 불교학자들이 참여해 인도 보드가야 뿐만 아니라 인도의 불교성지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정부, 비하르주 정부, 인도 관광청 등은 9월 26~29일 인도 보드가야, 바라나시 등 주요 불교 유적지에서 '2014년 국제 불교 대회(International Buddhist Conclave 201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도 불교순례지 개발'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인도와 한국을 비롯해 중국, 베트남, 부탄 등 불교국가들과 벨기에, 스위스, 러시아 등 40개국 불교 지

도자 및 학자들이 참가한다.

9월 26일 입재식을 시작으로 27일 보드가야에서 열리는 회의에서는 먼저 인도 각 주의 장관들이 불교 유적지에 대한 소개와 주정부 차원의 발전방안을 발표한다. 행사에 참여한 이들은 회의에 이어 라즈기르와 나란다대학 유적을 방문한다.

둘째날인 28일에는 바라나시로 이동해 갠지스강 유역의 불교유적지를 답사하며 갠지스강 지역을 고행구도의 여행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참가자들이 머리를 맞댄다.

인도관광청은 "지금까지 불교순례가 유적 방문에 그쳤다면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인도에 있는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순례로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명상에도 부작용, 불교에 해답 있다"

불교와사상의학연구회 7월 5일 '명상·체질·치유' 세미나

불교와사상의학연구회는 7월 5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학자, 한의사, 명상연구자, 심리학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명상·체질·치유'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 교수는 명상의 부작용과 불교적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정 교수는 서구심리치료학계의 명상 부작용 사례를 소개하며 명상을 체험한 62.9%의 사람들이 불안과 동기저하, 우울 등의 역효과가 있으며 7.4%는 과대망상증 증세를 비롯한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그 원인을 서양에서 명상을

가능적으로 사용하는데서 찾았다. 정 교수는 "불교 수행은 일반적인 괴로움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지만 명상은 스트레스라는 고통을 소멸하는데 그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종교적 거부감으로 불교에 대한 이해대신 불교수행, 명상의 기능만을 차용하면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최근 유행하는 심리치료, 상담에서도 이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자량 동국대 HK연구교수, 양승규 동국대 한의학연구소 연구교수, 이필원 동국대 한의학연구소 연구교수 등이 나서 불교와 사상의학의 학제간 융합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노덕현 기자

문화재청,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자문위 구성

7월 8일 조계종 문화부장 혜일 스님 등 참가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7월 8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국외소재 문화재의 환수와 활용에 관한 정책 자문을 위한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는 국외소재 문화재 보존·관리와 환수 및 활용 관련 각 분야를 대표하는 외부

전문가 등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된다.

이날 자문위원회는 위촉 후 첫 자문회의를 열고 △국외소재 문화재의 환수·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국외소재 문화재의 환수·활용 관련 중요 정책 스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논의했다.

자문위원회는 향후 반기별 정기회의를 열며 필요시 수시로 임시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자문위원회에는 불교계 인사로는 조계종 문화부장 혜일 스님(불교학), 정우택 동국대 교수(불교회화)가 포함됐으며, 김원기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장(국외문화재 환수·활용), 김동기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장(외교), 나중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정책), 오수동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사무총장(국외문

화재 환수·활용) 등 정관계 인사들을 비롯해 김재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동산문화재), 김지명 한국문화유산교육연구원 원장(국제교류), 김창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법학), 박영규 서울연구원 교수(민속공예), 박진 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교류), 이근관 서울대 부교수(법학), 이태진 전국가평안위원회 위원장(국제법), 지건길 국립중앙박물관장(매장문화재)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로 바라본 '주역', 그리고 중국 철학

불교평론 7월 17일 열린난단 성태용 교수 발제

사서오경 중 하나 임에도 그동안 점복술서로 여겨져 온 <주역>을 불교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자리가 열린다.

<불교평론>은 7월 17일 서울 신사동 세미나실에서 '주역과 불교'를 주제로 7월 열린난단을 개최한다.

이날 논사는 성태용 건국대 교수가 나서 불교의 중국전래 과정에서 중국적 사유, 철학과의 접합과, 주역과의 만남을

소개한다. 불자인 성태용 교수는 주역철학을 공부해왔으며 최근 Btn에서 '주역과 불교' 강의를 하기도 했다.

불교평론 측은 "불교는 중국에 전래돼 중국적 사유와 철학을 만나면서 그 사상의 폭과 깊이를 더해 온 종교"라며 "중국 철학의 확장과 심화라는 점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보고자 했다"고 소개했다. 노덕현 기자

'청룡사 목조관음보살상' 등 2건 보물 예고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7월 7일 '김제 청룡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등 2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하고 '서을 보타사 마애보살좌상' 등 3건을 보물로 지정했다.

보물로 지정 예고된 '김제 청룡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완주 불서사 향토전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된 보살상이다. 이 보살상은 △1655년이라는 정확한 제작연대 △조능(祖能)이라는 조각승 △불서사 향토전이라는 봉안 장소 △왕실의 안녕과 모든 중생의 성불을 염원하는 발원문 등을 남기고 있어 17세기 중엽 경 불상 연구의 기준이 되는 작품이다. 대형으로 제작된 상은 아니나, 조선 후기 불상의 특징인 평범하면서도 소박한 아름다움이 잘 나타나 있어 시대적 특징을 잘 살린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나주 다보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소조나한좌상'은 17세기 대표적 조각승인 수연(守衍)스님의 조각 특징이 잘 나타난 작품이다. 특히, 목조석가여래삼존상은 얼굴이 작고 신체의 건장함이 두드러지며, 소조나한상은 소조의 장점을 잘 활



나주 다보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용하여 각 존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러 존상에서 발견된 발원문을 통해 1625년이라는 정확한 조성연대, 조성 목적, 제작자, 시주자, 발원자 등 불상 조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어, 이 시기 불교 조각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의의가 크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보물로 지정 예고한 '서을 보타사 마애보살좌상' '서을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대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분청사기 상감' '정통4년 명' '김명리 묘지' 등을 보물로 지정 확정했다. 노덕현 기자

제137차 신라사학회 학술발표회

신라사학회(회장 김창경)는 7월 19일 오후 2시 서강대 정하상관 610호에서 제 137회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장일규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이재범 경기대 교수가 '궁예 정권의 종교

정책 - 치성광여래와 미륵신앙' △이영애 실학박물관 학예연구사가 '다산 정약용의 고대사 인식', △김성환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의 '고려시대 정성과 마리아 참성의 제천단' 이 각각 발표된다. (010)2253-5925 노덕현 기자

'불교학연구' 제40호 원고 모집

불교학연구회(회장 조은수)는 한국연구재단 불교학분야 최초의 등재학술지 <불교학연구> 제40호 원고를 모집한다. 제 40호는 9월 30일 발간되며 원고 마감은 7월 31일까지다.

<불교학연구>에 게재 요건은 200자 원고지 기준 120매까지로 200매 초과시 게

재가 불가하다. 논문 초과 게재료는 120매 이상부터 1매당 3천 원으로 동시 투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불교학연구회는 온라인투고도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불교학연구>는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등 연간 4회 발간된다. 노덕현 기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공단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수행도우미

미국 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나뻘을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차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感 체험
	효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 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운 냉병 즉시 해소 나뻘,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 장단지, 허벅지, 엉덩이, 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자,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르기 어렵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극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법음대 졸업, 중앙승가대강원 대학교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처명)